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의료정보팀, EMR과 KIMS와 연계된 시스템 구현

의료정보팀은 최적의 진료를 위해 EMR과 KIMS(Korean Index of Medical Specialties)가 연계된 처방지원시스템을 5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약제시스템은 약품 기본정보와 복약안내문 적용을 시작으로 약품식별, 처방 감사(監査)의 진료 시스템까지 완료했고, 최근에는 공통된 모듈을 포함해서 퇴원간호계획지의 간호시스템까지 KIMS 연동을 구현했다. KIMS 구축은 의사, 약사, 간호사의 의료진들에게 환자 처방을 위한 약품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정보팀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약제업무의 요구와 환경에 대처하고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전성을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02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최신 적외선 체열진단기 도입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최신 적외선 체열진단기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적외선 체열진단기는 방사선 위험이 없고 치료 전·후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X-ray나 CT에서 관찰할 수 없는 신경 통증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검사 가능한 병증은 안면마비, 허리나 목의 디스크병, 혈액순환 장애, 수술 후 증상 변화, 어깨나 가슴결림 등의 통증과 혈류 장애를 객관적으로 시각화하여 평가하고 측정 및 진단이 가능하다.

적외선 체열진단이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통해 체열분포의 변화를 촬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및 질병 부위를 컬러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판별하는 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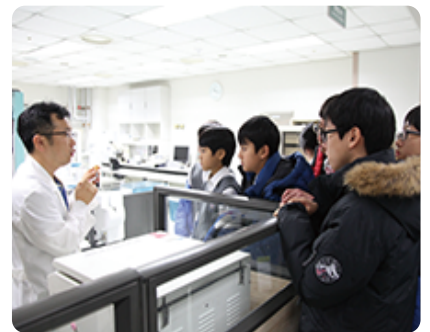


03 동국대학교부속중 직업체험 견학!!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5일 진로체험을 위해 본원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양·한방외래 및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치료실, 탕전실 등 병원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고 사진촬영을 하며 각 분야별로 희망하는 직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파트별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멘토가 나서 장래희망에 대해 상세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인솔교사는 “지금까지 많은 직업체험의 시간을 가졌지만 동국대학교일산병원만큼 체계적이고 성의있는 체험경험은 없었다.”고 전하며, 멘토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04 시즌 한정 동국진해고 출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 겨울철 한정으로 동국진해고를 선보였다.

진해고(鎭咳膏)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침과 해소천식을 진정시켜 주는 약으로 예전부터 호흡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 처방 그대로 조제하는 동국진해고는 진해거담에 효과가 좋은 십여 가지의 한약재를 달인 후 복잡한 여러 가지 제조과정을 거쳐 고(膏) 형태로 먹기 좋게 만든 정성이 가득 담긴 한약이다.



주인공 42호

원무팀
장대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항상 주인 된 자세로 업무하는 원무팀 장대현 선생님을 이번 주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병원은 참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일합니다. 같이 일해 보기 전에는 다른 부서 사람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인사성, 인상이나 이미지를 우선 보게 됩니다. 사람의 숨은 행동보다는 화려한 말이, 뒤에서의 노력보다는 겉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요. 이미지나 인상도 밝고 좋은데 업무로 접할 때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원무팀 장대현 선생님이 그러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장대현 선생님에 대해 고마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에도 이동하기 전 담당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남의 일로 미루지 않고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요구하기도 전에 끝까지 안내해줍니다. 50을 해도 될 일을 100을 해버리는 장대현 선생님은 업무에서 ‘수처작주 입처개진’ 실천자입니다. 현상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미리 문제가능성을 살피고 먼저 대안을 주어서 내부고객에 감동을 줍니다. 물론 외부고객에게도 친절합니다. 보호자들도 면담하고 나서 안심하고 고마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도 좋고 같이 업무할 땐 고마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겐 잘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최근 결혼식장에서 가족들과 있는 모습을 봤는데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 같더군요. 한해를 마무리하며, 저도 우선 가족에게 잘하고 업무범위가 모호한 일도 개인과 부서보다 병원전체를 놓고 생각하고 인사성도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해봅니다.

특수/한방간호팀장 진영숙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비, 월세액 공제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체크 Point 하나,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가족 중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 Point 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체크 Point 셋,

초·중·고교생을 위한 학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및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 한함)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